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투스 평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 제1독서 | 에제키엘 34,11-12.15-17

### 화답송



(후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출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제2독서 | 코린토1서 15,20-26.28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25,31-46

성가 | 입당성가 [75] 예물준비 [220]  
영성체 [180] 파견성가 [73]

### 미사 봉헌

#### 연미사

이형우 시몬 베드로 아빠스  
한시찬 라파엘 기일  
배용식 세자요한  
이중환 아퀴나스  
박난성 프란치스코  
모든 조상님들  
전장근  
김학순  
김은성 베드로  
이정진 안토니오  
고현실  
고현실  
강석중  
김두이  
김해봉  
김말임  
강복임  
강복선  
강무강

#### 생미사

박정자 로사  
민사현 베드로, 민라이언 가브리엘 영육건강  
김경련 율리따, 유경자 데레사  
김경련 율리따 영육건강  
김희정  
박혜화 도미니카  
박도미니카 가족  
하늘처럼 성가대 단원  
이하나 체칠리아

#### 봉헌

이인복 크리스티나  
조남록 미카엘, 데레사  
조남록 미카엘, 데레사  
조남록 미카엘, 데레사  
조남록 미카엘, 데레사  
조남록 미카엘, 데레사  
조귀숙 마르그나  
김영빈 루시아  
박혜화 도미니카  
익명  
가족  
최은자 세실리아  
익명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 봉헌

양복연 사비나  
민덕미 안젤라  
김승범 프란치스코  
조남록 미카엘, 데레사  
김영희 클라라  
익명  
안선정 마리안나  
김승연 안나  
방상욱 베드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대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의 음악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합니다.**

음악회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음악회 수익금, 후원금에 대한 상세 내역은 추후 공지됩니다.

\*후원금: 민완준 이영애 이일형 린다김 강해숙 강호영 셀리나헤지스 신요셉 마리아투어 김미하 데마레스트수녀원 김유화 안선정

**▶청년, 가톨릭교회 교리서 필독반 모집**

대상: 가톨릭 교회의 교리공부를 원하는 청년

일시: 월 1회 토 3pm. 신청: Fr.가롤로

**▶청년, 주보발행(BIBLE ACADEMY 2학기)**

청년들의 미사와 청년회 가톨릭 교회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청년주보 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기도, 봉사, 따뜻함이 있는 꽃!

대상: 20대, 30대, 40대 남녀

활동: 매주 회합을 통한 기도 및 활동나눔, 봉사, 분당 협조등

\*희망의 모후Pr./ 매주목 6pm 문의: 단장 정다경 마리아

347-514-5783 \*우리즐거움의 원천Pr./ 매주일 11am

문의: 단장 이기원 스테파노 929-208-5147

**▶브루클린 노숙자 보호소에 의류 기부**

드라이클리닝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 수거되지 않은 드라이클 리닝 의류가 있으면 노숙자 보호소에 기부해 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 간 기부해주신 분들 덕분에, 노숙자 보호소 거주인들이 단정한 비 즈니스 복장을 입고 면접과 일자리를 구할수 있었습니다. 세금공제용 영수증 발행 가능합니다. 문의: 347-834-5784 또는 347-247-4139

**▶2023 맨하탄성당 대림특강 및 집중 판공성사**

교우분들을 위해 소중한 말씀을 전하는 대림특강에 초대합니다.

**1.대림특강**

12/3(일)	1강의 10:30~12:00 김밥 12:00~12:30	현대미술과 천상어머니	이동욱 도마 신부(팔리성당)
	2토크강의 12:30~2:00	현대의 성모도상	이중환 요한신부 (작은제회,프란치스코회)



**2.판공성사**

나의 부족함을 뉘우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수 있도록 교우분들을 고해성사에 초대합니다.

일 시		고해 사제
12/17(일)	10:30~1:00	김찬미 가비노 신부(서울 대교구)
		조홍래 베드로 신부 (뉴왁교구 St.앤드류 소신학교 학장)
		김진열 가롤로 신부



**▶성경공부(BIBLE ACADEMY) 3학기 '신약' 개강**

주일반	12:40, 3A	개강:12/10(일)	3학기 신청 및 교재구입: 11/26(일)까지, 효주수녀
목요일반	10:00, 3A	개강:11/30(목)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11월의  
 나무에게 배웁니다



비워야 채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황중환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p>New Wonjo 212-695-5815</p>	 <p>뉴욕 맨하탄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p> <p>212-203-0072 Kakaotalk ID : nycacu</p>
<p>이민/부동산 (아오스망)  <b>백이백 변호사</b></p> <p>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p>	<p>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p> <p><b>120 WEST WINE &amp; LIQUOR</b></p> <p>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p>
 <p><b>Hair City Elegance</b></p> <p>교우분 환영합니다.</p> <p>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p>	<p><b>Nest Seekers</b> INTERNATIONAL</p> <p>부동산</p> <p>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p>
<p><b>CHA</b>          PHYSICAL THERAPY</p> <p>차 물리치료   침치료</p> <p>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p>	 <p>마리아 투어  <b>Maria Tour USA</b>          성지순례</p> <p>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p>
<p>그리운.  <b>miss KOREA</b></p> <p>10 W 32nd St. 1,2,3 FL, New York, NY 212-594-4963 전 스테파노</p>	 <p><b>백승민</b>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p> <p>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p>
<p><b>HB HANBIT TOUR, INC.</b>          한빛여행사</p> <p>Mary Lee</p> <p>1270 Broadway #303 Tel : 347-840-2112          (32 St.- 33 St.) Fax : 212-631-8070          New York, NY 10001 hanbittour@gmail.com</p>	<p><b>더큰집</b></p> <p>TEL. 212-564-8238</p>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1/26	정유진 권솔시아	이태주 레오	김승연 안나	김승연 안나	김영숙 카타리나	한서희데레사 김수현실비아
12/3	김유화 데레사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김수현실비아 한서희데레사

**"당신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 연탄 한 장 - 안도현

삶이란 /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가까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붙었다 하면 /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온몸으로 사랑하고 /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 너에게 묻는다 -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연탄을 주제로 쓴 '연탄 한 장'과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연탄은 자신을 태워서 열을 내고 사람을 따뜻하게 해 주고, 한 줌의 재로 생을 마칩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해 주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불사르고 자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연탄에 한 번 비유해 봅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탄 연탄재를 발로 툭툭 차듯, 십자가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를 때 침 뱉음의 비난도 다 받으시며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교회는 왕으로 모십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왕)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님과 유대인을 알아보듯이) 라고 물어보는 세속적인 절대권력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같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연탄처럼 인간을 위해 온 몸을 불사르는 왕입니다.

서민들의 대명사라 불리는 연탄처럼 예수님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왕입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고 고쳐주신 왕입니다. 교회는 전례력으로 한해의 마지막 주간을 지내며 시작이요 마침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며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한 해를 살아왔는지, 예수님의 어떤 점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곰곰이 한 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습니까?"**

정철환 타대오 신부

